

외국인 직접투자 광주·전남은 꺼린다

100억달러 돌파 최대 실적에도 광주 3건 전국 최하위 전남은 17건 1억2300만달러 12위…대책마련 시급

올 상반기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상반기 신고기준 투자유치실적은 3건에 600만달러, 전남은 17건 1억230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총액의 2%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광주시의 실적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세종시 제외)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도 역시 12위에 그쳤다.

광주시는 2014년 15건에서 지난해 26건

으로 유치건수는 늘었으나 유치 금액은 신고기준 2억7500만달러에서 5200만달러로 급감했다.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액이 크다.

전남도 역시 2014년 29건 1억2300만달러에서 지난해 35건 7900만달러로 유치건수는 늘었으나 금액은 줄었다.

실질적인 투자라 할 수 있는 도착금액에서도 실적이 좋지않았다. 도착기준 금액은 광주시의 경우 2014년 10건 1900만달러, 2015년 19건 1200만달러, 올 상반기에는 5건 800만달러에 그쳤다.

광주시의 2014년과 201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금액이 각각 2억7500만달러와

5200만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수 투자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신고금액이 급감한 것은 2014년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최근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상대로 자동차산업과 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전남도의 도착기준 투자유치 금액이 2014년 22건 1억4800만달러, 2015년 29건 7300만달러, 올 상반기 11건 2700만달러로 신고금액 상당수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 지자체들이 직접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서 관계자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을

증액투자를 유도하기도 벅거운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세계 경제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돼 투자유치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된 투자유치활동을 통합추진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신산업분야를 특화해 맞춤형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05억2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8.6% 늘었다. 상반기 실적이 100억달러를 넘은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4.79 (-24.24)	↑ 금리 (국고채 3년)	1.25% (+0.04)
↓ 코스닥	698.32 (-2.58)	↑ 환율 (USD)	1117.60원 (+7.60)

탈출구 안보이는 자동차 수출 신흥시장 침체…전년비 13.5% ↓·단가도 3년째 하락세

신흥시장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동차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판매단가까지 하락하면서 수출의 양과 질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은 133만5169대로 전년 같은 기간 154만4405대로 13.5% 줄었다.

총수출 금액은 190억1861만 달러(약 21조1200억원)로 작년 상반기 222억1224만 달러보다 14.4% 감소했다.

수출 금액이 판매 대수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차량 한 대당 수출 단가(총수출 금액/총수출 대수)가 작년 상반기 1만4400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만4200달러로 하락했다.

문제는 수출 단가가 2014년 고지를 찍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수출 단가는 2009년 1만700달러에서 2014년 1만4900달러까지 매해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1만4300달러로 6년 만에 감소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자동차의 수출 단가가 2014년 1만6300달러에서 지난해 1만5900달러로 400달러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400달러로 전년 대비 600달러 낮아졌다.

현대차의 수출 단가 하락은 고급 승용차 판매 감소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상반기 그랜저(HG) 6695대, 제네시스(DH) 2만3074대, 에쿠스(EQ900) 2194대를 수출했지만, 올해는 그랜저(HG) 3048대, 제네시스(DH) 7937대, 에쿠스(EQ900) 63대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4.5%, 65.6%, 97.1% 감소한 수치다. 이들 모델은 올해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두고 기존 모델 노후화로 수출이 급감했다. 고급차 단일인 중등산유국이 유가 하락 때문에 판매를 줄인 것도 원인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3분기 미국에 출시 예정인 G90과 연말 출시하는 그랜저의 수출이 내년 상반기 본격화되면서 수출 단가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도 수출 단가가 2014년 1만3600달러에서 지난해 1만3400달러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만천500달러로 소폭 회복했다.

전체 수출은 줄었지만, 가격이 높은 레저용 차량(RV)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에서 RV 판매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4.1%에서 올해 38.4%로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전세대출 부분 분할 상환 추진 금융위 제도 개선…만기시 원금·이자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가 3일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전세대출을 일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2년으로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전액을 분할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일부라도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 1억원을 연 금리 3%로 2년간 대출받을 경우 월 42만원씩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9천만 원이 남게 된다. 원금 상환으로 대출 기간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도 줄어든다.

일시상환하면 6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하지만 10%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572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위는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해서 전세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논의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올해 상반기 전세대출은 18% 넘게 증가했다.

KB국민·KEB하나·NH농협·신한·우리은행의 전세대출은 작년 말 23조 663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7조9273억원으로 4조2637억원(18.0%)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 광명주택 부도…입주자·협력업체 피해 우려

당진·천안 분양 차질…협력업체 60곳 230억 피해 전망

광주·전남지역 중견 주택 건설업체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됐다.

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주택은 지난 1일 만기도래한 4억4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고, 이날 만기 도래한 1억2000만원의 어음도 막지 못했다.

광명주택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2금융권에서 차용한 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경영권도 위협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공급에 나선 충남 지역 일부 아파트가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했다.

광명주택 부도로 입주를 앞두고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회사는 당진과 천안에 각각 391가구와 497가구 규모의 중층형 아파트 분양도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로 이달 입주가 예정됐던 광주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의 일부 입주주에 대

해 입주가 연기되기도 했다.

광주시 서구와 상무광명메이루즈 지역 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상무광명’은 오는 9월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49% 가구가 대부분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이 승인되고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된다면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당장의 금전적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입주가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주택보증기금 등으로 마무리 공사 등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또 이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구와 북구의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가입시 납부한 금액은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광명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60여개 협력업체들은 최대 23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어음으로 받은 70억~80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앞으로 만기 도래할 피해 금액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명주택은 지난 1982년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광주를 기반으로 해 주택, 건설,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샐강 다슬기 성업중!!

샐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촌달백숙, 오리백숙** 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갈증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열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촌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촌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 · 수제비 · 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샐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신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화순읍내 큰재수민리

샐강 다슬기

건 축 물 에 예 술 을 입 히 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페니스카넷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장외재 패턴디자인이 잔 멘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